



흐린 날씨, 코트디부아르 코코아 작황 위협

(Overcast weather threatens Ivory Coast's cocoa crop)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 재배 지역 농민들은 월요일 흐린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며, 9월부터 2월까지 이어지는 주 수확기 작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햇볕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코코아 생산국인 코트디부아르는 현재 우기에 있으며, 우기는 일반적으로 4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농민들은 지난주 강우량이 대부분 평균치를 웃돌았다고 말했다.

흑해와 호르무즈해협 긴장 고조로 러시아 밀 수출가격 급등

(Russian wheat export prices rise sharply amid escalating hostilities in Black Sea, Strait of Hormuz)

분석가들은 월요일 흑해의 어려운 해운 여건과 호르무즈해협에서 발생한 새로운 무력 충돌로 인해 지난주 러시아산 밀 수출가격이 급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주 러시아 전 지역에서 국내 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7월 밀 선적 전망치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조프해와 불가강 터미널의 수요 부진이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Thomson Reuters